

# 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2월 13일 ~ 2022년 2월 19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자율교환으로 종자를 확보한 농가는 종자 활력검사를 받고, 맥류 웃거름 살포와 봄 감자 싹 틔우기에 신경 쓰고, 시설채소 환경관리와 마늘·양파 웃거름 주기, 과수원 동해 예방 및 월동 후 사료작물 관리에 힘쓴다.

## 1. 벼농사

- 벼 보급종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우량 종자생산 농가와 자율교환을 통해 종자를 확보하되 탈망작업 및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, 신품종을 재배할 때는 적응지역과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파악하여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재배를 피하도록 한다.
- 땅심 높이기를 위해 보통논, 미숙논은 18cm 이상 깊이갈이를 실시하며, 벧짚 또는 퇴구비를 시용하지 않은 논은 깊이갈이를 지양하고 유기물을 주지 않은 논과 퇴비를 준 논은 봄갈이를 실시한다.

## 2. 밭작물

- 밀, 보리의 웃거름 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2월 중순~하순이며, 웃거름 주는 양은 10a에 요소비료 9~12kg으로 2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나 노력 절감을 위해 1회에 주어도 무방하다.
- 감자는 싹이 빠르고 고르게 올라오도록 산광 싹 틔우기를 하는데 파종 예정일부터 약 20~30일전(2월 중순~하순)에 실시하고 3월 상순~중순에 아주심기를 한다.
- 산광싹틔우기는 15~20℃ 온도와 습도 80~85%를 유지하고 30~50%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실시하되 낮에는 25℃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며 밤에는 얼지 않도록 보온을 실시한다.
- 씨고구마를 묻은 후 싹이 트기까지 묘상에서는 가급적 고온인 30~33℃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~25℃로 조절하며 충분히 관수하여 씨고구마가 마르지 않도록 한다.

### 3. 채 소

- 난지형 마늘과 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도록 하되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- 고품비료를 직접 살포해 주는 대신 물에 녹여 물 비료를 만들어 주면 비료의 손실을 방지하고 비료 효율도 높아진다.
- 고추 육묘 중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처치로 요소 0.3%(물 20 L당 요소 60g)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킨다.
- 시설채소 보온용 커튼이나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주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덮어서 보온력을 높여 주며, 낮에는 환기를 알맞게 하여 과습을 예방하고 이산화탄소(CO<sub>2</sub>)를 공급한다.

### 4. 과 수

- 과수 동해 피해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정은 눈을 평년보다 1.5~2배 남기고 피해 확인 후 마무리 전정을 2월 하순~3월 상순까지 실시한다.
- 과수 전정시에는 주요병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고 전정가위는 반드시 소독 후 다른 나무 가지를 자르도록 한다.

### 4. 축 산

- AI 차단을 위해 차단방역과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물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.
- 사료작물 웃거름 주는 시기는 생육이 시작할 때가 적기인데, 남부지역은 2월 상순이 적당하다. 웃거름 양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경우 ha당 요소비료 11포(220kg), 청보리와 호밀은 6포(120kg)정도이다.
  - \* 만약 가을에 퇴비를 많이 넣었거나 봄철에 가축분뇨를 뿌릴 경우 화학비료 양을 줄여준다.